

KS 인증제품 발암물질 검출에도...

문제제품 14개 모두 미수거 ... 판매중지 처분에도 상당기간 유통

KS 인증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수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KS마크를 단 학생용 책걸상과 가정용 주방설비 10개 브랜드의 14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검출됐다.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와 KS 인증·사후관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14개 제품 중 1건도 수거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정용 주방설비기업인 H사 제품은 2008년 9월18일 기준치(1.5mg/L 이하)의 2배가 넘는 3.4mg/L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지만 수거조치 없이 2009년 4월22일 3개월 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만 받았다.

페놀(Phenole), 비소(Arsenic) 등 발암유해물질이 포함된 수도꼭지 및 수도 밸브도 KS 인증을 받고 상당기간 시중에 유통됐다.

2012년 4사가 생산·판매한 수도꼭지와 밸브에서 페놀과 비소가 검출돼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수거된 것은 2사의 제품뿐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KS 인증 및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하고 유통제품은 전량 수거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8>